

# ‘세계일화’ 뿌리는 변함없는 전법의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미주 포교현장 방문

5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정부측 대북 관계자들과 만나 북핵 및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보스턴, 뉴욕, LA를 잇달아 방문, 현지 한국불자들이 격려하고 포교현장을 둘러봤다. 특히 뉴욕에서는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종교간 상생을 강조했으며, 프로비던스 켄 센터를 방문해 벽안의 납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 # 해외특별교구 설치 ‘충분히 가능’

법장 스님은 27일 뉴저지 ‘대원’에서 열린 동중부 승가회와 간담회에서 “해외특별교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중부 승가회측은 간담회에서 ▲뉴욕에 해외특별교구 설치 ▲뉴욕한국불교문화원 건립 ▲사미계 후 해외포교활동 인정 ▲출가연령 제한 폐지 등을 법장 스님에게 건의했다. 해외특별교구 설치와 관련 법장 스님은 “올해 초 중현상 군중 특별교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준비도 마쳤다. 따라서 해외특별교구의 설치도 법적인 방안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국 동중부 승가회 스님들이 건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불교문화원 건립에 대해서도 법장 스님은 “먼저 현지 스님들이 계획서를 마련한 후 신앙 있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건립 준비위를 구성하고 현지에서 모금운동을 벌여서 재원을 어느 정도 마련한다면 종단에서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 # 프로비던스 켄 센터 등 방문, 관계자 격려

27일 한국불교 해외포교의 선구자 숭산 스님의 법당이 여전히 짙게 배어있는 프로비던스 켄 센터를 방문한 법장 스님은 “숭산 큰스님께서 생애를 통해 몸소 보여주시고, 일러주시는 가르침을 현창하고 받들어서 진정한 세계일화를 일궈내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원장 대광 스님은 “한국 수출품중 제일 훌륭한 것이 한국불교의 맑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불교와 큰스님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며 “다음 생애에도 이러한 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프로비던스 켄 센터에서 숭산 스님 제자들이 법장 스님에게 삼배를 올리고 있다.

## # 뉴욕 종교지도자 만나 ‘상생’ 강조

법장 스님은 뉴욕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종교간 대화와 공존,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장 스님은 28일 뉴욕 맨하탄 인터페이스 센터에서 멧 와이너 뉴욕 인터페이스 센터 부장, 존 히엡스트라 뉴욕 교회의회 의장, 알라메루 아이언가르 북아메리카 힌두교사원회 의원, 바바 카브레아 몬테시레 아프리카 및 아프로-카리비안 종교대표, 이맘사시 알리 퀸스이슬람 사원 원장 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각 종교의 좋은 점을 살려서 공유하고 실천하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전쟁 없는 평화의 삶, 괴로움 없는 행복한 삶을 모든 인류가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종교가 다르다고 불신하고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스님들, 현지 포교 어려움 털어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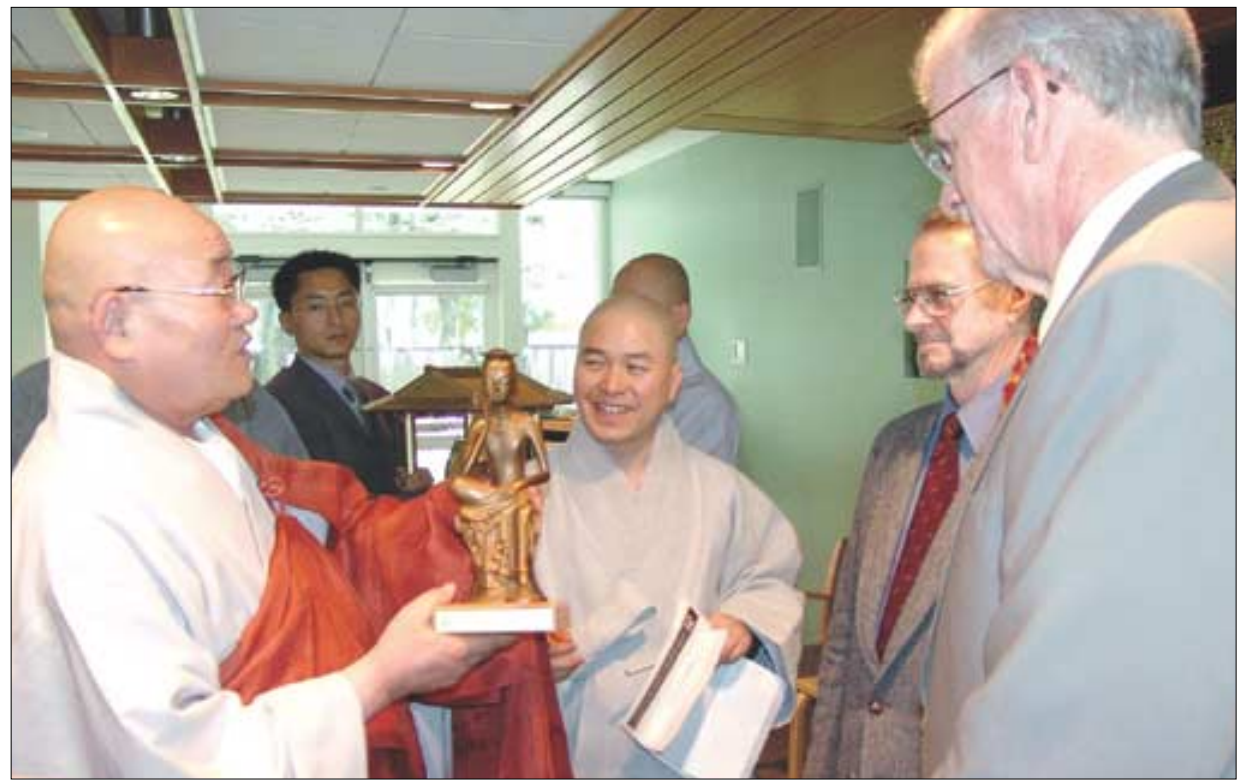
“스님들이 해외에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포교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 구사력 때문입니다.”

28일 뉴욕사원연합회장 위광(불광사 주지)·총무 서천(마하선원 주지) 스님은 미국인들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포교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답히 털어놓았다. 스님들은 재정적인 문제도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스님 개인의 능력으로 집을 사서 이를 개조한 다음 절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현지인을 상대할 여유가 없습니다.”

스님들은 청소년 포교를 위해 사찰에서 한글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민 1.5세대 2세들을 대상으로 사찰에서 한글학교를 운영해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를 자연스럽게 전달해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5월27일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소를 방문해 도날드 스웨어 세계종교연구소장(사진 오른쪽 두번째)과 로버트 지멜트 교수(오른쪽 첫번째)에게 한국불상을 증정하고 있다.

법장 스님은 27일 보스턴 프로비던스 켄 센터를 비롯해 28일 뉴욕 원각사와 불광사, 29일 LA 고려사와 달마사, 30일 태고사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 뉴욕·LA 대법회 1천 5백여 사부대중 참석



1천여명이 모인 뉴욕대법회에서 법장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법장 스님 초청 뉴욕·LA 대법회가 28일 뉴욕 아스토리아 월드메나와 29일 LA 동국로얄대에서 각각 1천여 명과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법회에서 법장 스님은 “오직 전법의 사명 하나로 바다를 건너와 정법의 당간을 세우는데 애쓴 여러분의 노고에 본국의 불교계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신심과 원력은 미국사회에 한국불교를 깊게 뿌리내리게 하는 거름이 되고 있다”고 법문했다.

뉴욕 대법회에서 법장 스님은 법안(전 원각사 주지)·대광(프로비던스 켄 센터 선원장) 스님, 임관현 불교 설립인 협회 고문, 최무지 뉴욕 불교 연합 협의회 초대 이사장, 조일환 이사장 한미 불교 문화재단 이사장, 박성배 교수(뉴욕 스토니브룩 주립대 한국학과 학과장) 이강해 재미한국인회 명예회장에 공로상을 수여했다.

LA 법회에서는 현일(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 고문)·현철(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 회장)·무량(태고사 주지) 스님과 이정규 상륙회 회장, 이철우 LA 포교사단 고문, 최기홍 LA 포교사단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법장 스님은 30일 서래대와 31일 동국 로얄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8박9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쳤다.

글·사진/미국 보스턴·뉴욕·LA·남동부 기자



## # 법장 스님의 민간외교 ‘괄목’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민간외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법장 스님은 미국 방문 중 대북 관계자들과 만나 북핵 및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5월 12일 이라크 자이툰 부대 방문 경험을 이야기하며 “평화를 명목으로 한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또 디트리히 북핵 대사가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다”고 말하자 “6월 15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미국측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전해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른바 징검다리 외교 역할을 자청한 것이다.

법장 스님의 이 같은 민간외교 행보에 대해 많은 이들은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불교의 수장으로서 갈등과 고통이 있는 곳에 자비와 평화의 법음을 들려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단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현안에 대해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 대북 관계자들 만나 북핵 및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한 친서 전달

법장 스님이 프로비던스 켄 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스님에게 ‘자비의 연꽃’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 730-0705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자	교통	일정
1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팀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티벳 성지 순례 8일 6월 9일 출발  
 여행경비: ₩ 1,850,000원 (중국 비자비, 가이드, 기사비 포함)  
 왕자 스타르타에서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묘음에 밀고 티벳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태국 성지 순례 6일 여행경비: 79만원 (10명이상 출발)

삼보에 뉘의 하얏고  
 당시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